3 - AUG - 9
Copy ____ 1960

백인균 그림

—큰 오빠! 빨리요!
—가만 있어라 오늘 내가 처음 선거하는 날인데…

활살

10월호 1956년(71)

진정한 조선 인민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지지한다

진정한 인민의 의사를 반영한 이들이 우리의 정권 대표이다

박승히 그림

테로와 억압으로 조작된 미제의 괴뢰는 조선 인민의 원쑤이다

어느 모로 보나

유 항림

립후보자 추천 대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김 태룡 로인은 윗집 청년 성호에게 신바람이 나서 설명하고 있었다.

『그렇구 말구, 농사 일에 들어서야 영배는 누구한테나 뒤서는 일이 없지. 논갈이, 밭갈이, 후치질, 써레질, 골배기, 무슨 일에나 우리 조합에서 그만한 '일'군이 어디 쉬운가! 그뿐인가 나보다는 십여년이나 아래지만 우리 늙은 축들두 무슨 일이건 생기면 의례 영배한테 가서 의론하게 된다 말야, 똑똑하구 부지런하구 경위 밝구 인심 좋구… 우리 군의 대의원으로 뽑을만 하지!』

『우리 청년들두 해결하기 곤난한 일은 영배 아저씨한테루 가서 의론합니다. 군 인민 회의 대의원이 되면 우리들이 생각하구 바라는 것이 더 잘 실현될거예요.』

『그렇구 말구 작년에 협동조합이 생길 때만 해두…』

태룡이는 문득 말을 끊었다. 때마침 보름 달이 낮같이 밝는데 그들보다 앞서 패들 줄에서 덕보 로인이 자주 힐끔힐끔 돌아보군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덕보와 태룡이는 외모나 성격부터 서로 다른데다 만사에 의견이 서로 맞지 않았다. 태룡이는 키가 작고 까부는 편이지만 덕보는 허리가 늘씬하고 거동이 떴다. 젊어서부터 서로 성벽내기를 해 온 결과 장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라도 한 평갈이 지름 길로 가자면 하나는 의례 신작로로 돌아 갔다. 하나가 주장하면 하나는 덮어놓고 반대하고야 마는 두 로인의 괴벽은 웃고 말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평지풍파를 일으키기도 했다.

덕보가 힐끔힐끔 돌아보는 것을 알자 태룡이는 «내가 영배를 칭찬하니까 저자는 의례 생트집을 잡으렸다!» 하고 생각하면서 목소리를 좀 더 높이였다.

『조합에 들면 아니꼬운 꼴을 보게 될가 해서 난 안들려구 했다네, 그런데 영배가 찾아와서 타이르데,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들은게 참 잘 했어』

덕보가 조합에 든다는 바람에 태룡이는 한때 가입을 반대하고 나섰던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런데 흠 없는 사람 없다더니 영배에게두 한가지 흠이 있어…』

『예? 어떤 점에서여?』

청년은 반문했고 덕보는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기다렸다. 태룡이는 덕보를 쳐다보더니 입을 비죽거렸다.

『덕보 임자의 심보를 알만 하네! 영배에게 흠이 있다니까 뛰여 오는구만!』

『그래 무슨 흠이 있는지 말해보라구.』

『듣구 싶다면 말하지. 영배에게는 한가지 재간이 부족한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거짓말 하는 재간이 통 없단 말야. 자 어때? 잘 들었나?』

『체, 심술꾸러기 다운 소리군! 거짓말 안하는게 그게 무슨 잘못이람!』

『우리 립후보자에게 흠집이 가득 하다면 좋겠단 말이지?』

『흠이 있다구 한게 임자지 나야?』

그럼 내가 영배 칭찬을 하니까 힐끔힐끔 눈을 흘기다가 흠이 있다니까 기뻐서 달려온게 누구냐?』

『눈은 누가 흘겨? 임자가 어찌다가 옳은 소리를 하기에 늙으막에 제 정신이 나가구 남의 정신이 든 모양이로군 하구 신기해서 들었지! 그랬더니 흠이 있다느니 뭐니 하지 안아? 그러면 그러겠지, 저자가 사람을 바로 볼 리야 있나 해서 뭐라구나 하는가 해서…』

『그게 무슨 소리야 제 정신 나가서 옳은 소리 한다는 법이 어디 있어?』

『임자는 본시 미친 생각을 해오는 사람이니까 하는 말이네.』

송용남 그림

3개년 계획을 기한전에 완수 및 초과 완수함에 있어서 공화국 청년들은 혁혁한 공훈을 세웠다.

『그래 영배를 지지 찬성한단 말이지?』

『그렇지 않구! 임자 모양으로 공연한 생트집은 안 잡겠네.』

『거 참 조환데…』

『좋은 사람 좋다는데 뭐 조화냐?』

『환장한 자가 바른말 하니까 말이지.』

그때 청년이 말참견을 했다.

『할아버지네들은 영배 아저씨가 이따끔 옳지 않은 말을 하는것 같지 않아요?』

『그래 어떤 말을 하더란 말이냐?』

『두분 할아버지들께서 만나기만 하면 다투기만 하는건 좋지 않으니 의좋게 지내면 어떻냐고 영배 아저씨가 언제나 말씀하는걸, 할아버지네들은 물론 옳지 않다고 생각하시고 계시겠지요?』

『이놈, 대답하기 곤난할 줄 뻔이 알면서두 늙은 이들더러 그런 걸 묻는 법이 아니다.』

셋이는 모두 웃었다. 이 두 로인도 서로 의견이 같았다는 것이 불쾌하지 않았다.

남잡이가 제잡이

리승만—아이쿠 이놈이 나를 치는데?!

팟소 독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리승만은 자기 비위에 맞지 않는 사람을 닥치는데로 박해를 가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자기 자신에 대한 비난과 반대를 초래할 뿐이다. 그 례의 하나로서 장면 저격 사건을 들 수 있다.

리영춘 그림

립후보자의 수난기

김 세륜

송 병호는 정성들여 몸 단장을 하고 집을 나섰다. 두시에 선거 연설을 하게 되여 있었던 것이다. 이 출마 연설은 오래전부터 예견돼 있었으나 당국에서 이리저리 말썽이 있어 연기돼 온 것이 오늘이야 겨우 허가가 내렸다. 그는 가슴이 초뭇했다. "자유당" 립후보자 김 승우가 그의 연설을 방해하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러나 누가 알랴 다시 무슨 말썽이 생기지 않을는지…

그는 될 수록 번잡한 곳을 택해서 걸었다. 아직 주머니에는 어젯밤 난데 없이 날아든 립후보자 등록을 취소하라는 협박장이 들어 있었다.

오늘 선거 연설에 나가면 재미 없다는 위협이나 다를게 없는 것이다. 그러니 으슥한 골목 길에서야 무슨 봉변을 당할는지도 모를 일.

그는 시장을 건너서 갈 작정이였다. 아무리 김 승우의 졸도인들 시장 마당에서야 테로를 해내나.

『아차! 잘못 들어왔군… 시장 복판에서 험상 궂게 생긴 자들에게 에워싸여 오도 가도 못하게 됐을제 그는 비명을 질렀다.

『길을 좀 비키시오! 난 바쁜 사람이요!』

고함을 지를 수록 험상 궂게 생긴 자들은 더 혹심하게 밀어댔다. 시간에 늦을 근심으로 조급해진 그는 땀을 빼며 헤여나가려고 발악했으나 아무 소용도 없었다.

별안간 「쓰리다!」 하는 비명소리. 이 혼잡 속에서 어디선가 도적이 난 모양이다. 이 비명은 신호나 된듯 갑자기 옆에 있던 자들이 와 하고 밀치는 바람에 송 병호는 정성들인 몸 단장도 립후보자의 위신도 없이 진탕에 넘어지고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고 말았다.

송 병호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어 났을 때에는 벌써 경관들이 시장을 포위하고 하나하나 조사하고 있을 때다. 『인제야 살았구나…』 하고 그는 경관 앞으로 나섰다.

『여보시오. 난 립후보잔데 빨리 선거 연설을 가야겠오』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의외에도 경관은 그를 힐끔 보더니

『이자식이 미쳤나? 차례 차례루 서!』 하고 방맹이로 쿡 밀친다. 그러자 군중이 와하고 웃어댔다. 그제야 송 병호는 지금 소동에 자기옷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진탕에 덩굴고 코, 피가 터져 도깨비 처럼 되구 있는데 놀랐다.

『제—길 이래서야 누가 립후보자라구 알아볼 사람이 있나 꼴이 이렇게 됐다구 웃지마우. 난 이런 사람인데…』 하고 명함을 꺼낼 양으로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아니 이런 변이라구야! 명함도 증명서도 온데 간데 없이 주머니는 텅 비지 않았는가?

『쓰리를 맞췄군…』 송 병호는 가슴이 덜컹했다. 당황한 그는 얼른 아랫 주머니에 손을 넣어 봤는데 무엇인가 손에 잡힌다.

『옳지 대기 있었군…』 그렇지만 나온 것은 난데없이 쎄로판지에 싼 회색 상자였다.

의심스럽게 살피고 있던 경관이 그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게 뭐냐?』

대뜸 경관은 상자를 가로 채서 뜯어보더니 환성을 울렸다.

『옳지 네놈이…가자!』

『아니 왜 이러는 거야! 난 립후보자요』

『이자식아! 아편 밀수입을 해 먹으면서 뭐 립후보?』

『뭐? 아편?』

상자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송 병호는 정신이 아찔했다. 틀림없는 아편덩어리… 아니 이게 어디서 나왔단 말인가? 쓰리꾼이 바쁘니까 나한테…생각할 사이도 없이 「철카닥!」 립후보자의 목에 수갑이 채워졌다.

『아니야! 난 모를 일이다!』

아무리 고함을 질러봐야 무슨 소용이리

× ×

그다음 일은 독자를 상상에 맡기자 남조선 경찰에게 일반적인 구류자가 당하는 모든 생벼락 맞은채 사흘 동안을 죽은 듯이 류치장 마룻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나흘채 되는 날 송 병호를 고문하던 형사가 류치장 앞을 지나갔다. 더는 견딜 수 없이 쇠약해진 송 병호는 마지막 악을 다 쓰면서

『여보시요! 난 정말 애매한 사람이요! 날 살려주시요! 우리집에 조사해보면 알게 아니요!』 하고 고함을 질렀다. 형사는 힐끔 돌아다 보고 의미있게 히죽이 웃더니 아무 말도 없이 편지 쪽지 하나를 던지고 갔다.

송 병호는 무엇인가 희망이라도 생기는듯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앗! 소리를 지르고 돌처럼 굳어져 버렸다. 거기에는 잊을 수도 없는 협박장과 꼭같은 글씨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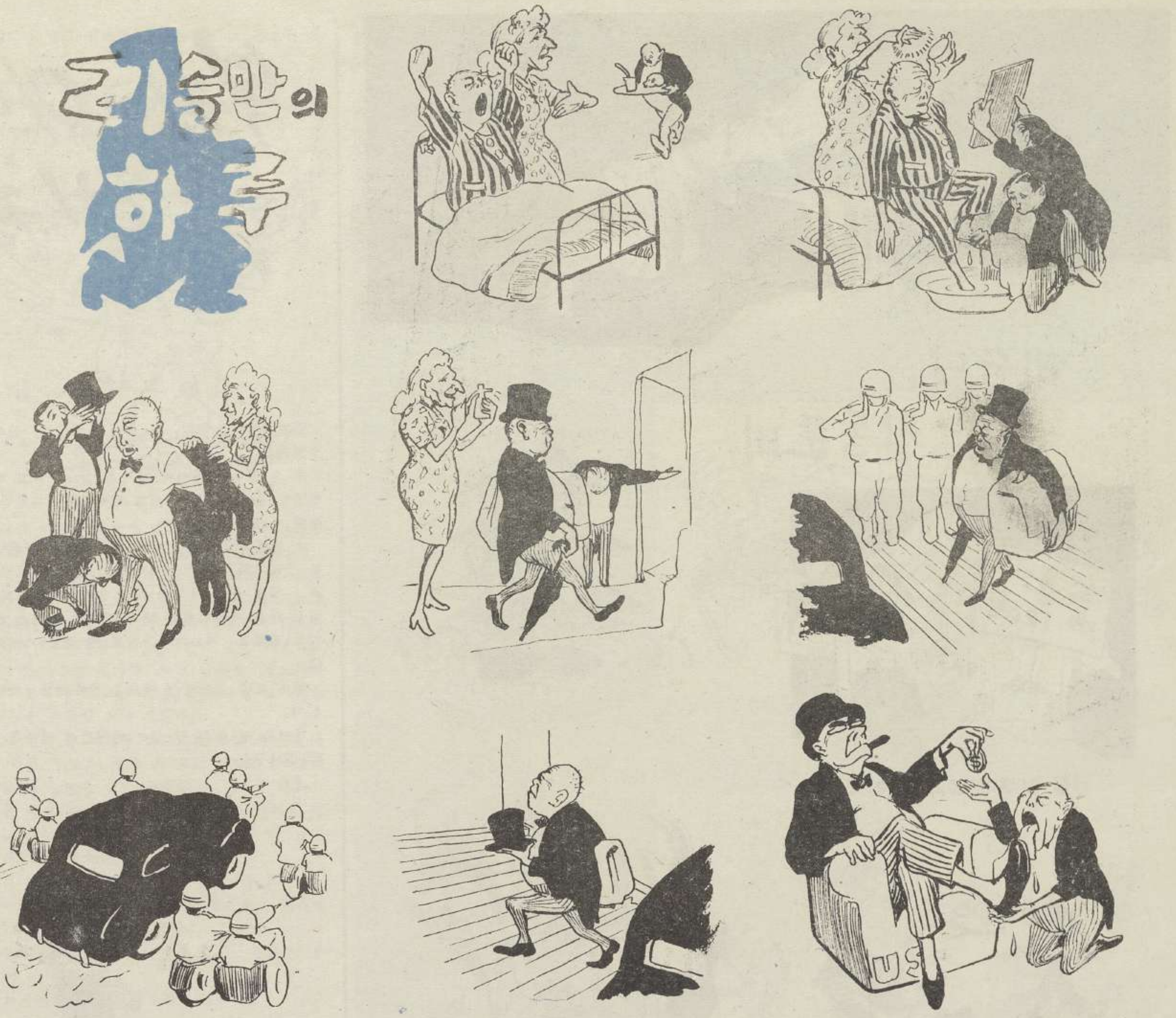
『립후보 등록을 취소하시요! 그러면 당신의 정적인 김 승우씨에게서 상당한 보수가 있을 것이요』

그이 머릿속에 지나간 일이 주마등처럼 떠 올랐다. 협박장, 사람의 떼, 쓰리, 아편, 구류, 고문… 그리고 또 협박장…

× ×

이리하여 송 병호의 정적인 김 승우는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무투표 당선 만세를 불렀다. 그야 자유로울 수 밖에… 아무도 투표할 필요가 없이 되였고 아무와도 경쟁할 필요가 없이 됐으니까

리승만의 하루



홍종호 그림

노래를 부를 수록…

죽을 날은 가깝다

백인균 그림

리승만의 월동준비

남을 얼쿠어 놓고 한 몫 보기

되박쌀 마저 글거 처먹기

살림 집에 불 지르고 쪼이기

죽을 구멍 제가 파기

송용남 그림

복권이 아니라 화권

신 흥순

남조선에서는「돈, 빽, 권」세가지가 있어야만 살 수있다.

즉 돈 있는 사람만이 형세를 할 수 있고 빽 있는 사람만이 출세를 할 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만이 세도를 부릴 수 있다는 말이다.

그 중에도 권력이 제일이다. 왜? 권력만 있다면 돈 뭉테기와 뢰물짐이 제절로 굴러 들어오게 마련이요. 행패 부려 략탈을 해도 눈섭 하나 까딱 없고 닥치는 대로 사바사바를 해도 법망에 걸리는 법 없이 잘 먹고 잘입고 거드러 거리고 잘 살게 마련이기 때문에…

헌데 요즘 항간에는 새로운 수수께끼 하나가 생겨났다.

『권은 쥘 수록 잘 살게 마련인데 쥘수록 못사는 권이 뭐냐?』

『화'권!』

◇

『화'권』이란 것은 도대체 어떤것인가? 『북진』발광에 날뛰는 리 승만 괴뢰 정부의 전쟁 예산은 실로 천문학적 수'자에 달하고 있다. 세입원천이 없는 방대한 군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세금을 올린다. 관영료금을 올린다. 적산을 불하한다.

별별 수작을 다 해 봤으나 그것을 충당하기에는 너무나 터무니가 없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고안해 낸 것이 요즘 인민들에게 강매하고 있는『산업 부흥 채'권』이나『애국 복권』이니 하는 채'권이다

이 다액의 채'권을 소화하기 위해서 그 전에 왜놈들 하던 방식으로 매호에 할당해서 의무적으로 사게 하고 그 외에 상점에서 물건 사는 데도 채'권, 료리점에서 술 마시는데도 채'권, 허가 내는데도 채'권, 증명서 내는데도 채'권, 심지어는 청소 안했다고 트집잡아 벌금 대신으로 채'권을 안긴다.

이 채'권을 인민들은『화'권』이라고 부른다.

◇

『화'권』이란 말이 어째서 생겼는가? 그 경로는 이러 하다.

전라도 한 농촌에 김 봉구 라고 하는 농민이 살았는데 지난 9월 중순 어느날 그의 안해가 갑자기 식중독에 걸려 생명이 위급하였다.

농촌이 돼서 의사나 약국이 없는 곳이라 약 한첩을 지어 오자 해도 30리나 되는 읍엘 가야만 됐다.

그래서 김 봉구 령감은『통행증』을 내려고 리 사무소에 달려가보니 500환어치『애국 복권』을 사야만 내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리 저리 뛰여 다니며 간신히 돈마련을 해가지고야『통행증』을 손에 쥐게 되였다.

읍엘 가자면 나루를 건너야 하고 나루를 건느자면『도강증』이 있어야 하고『도강증』을 내자면 또 500환어치『복권』을 사야만 되게 되였다.

그래서 또 겨우 돈 마련을 해가지고 강을 건너 읍에 가서 약을 지어 가지고 돌아 와 보니 시간은 지났고 병은 고비를 넘어 때는 이미 늦었다.

김 령감은 애석하게 가엽시 죽은 안해의 시체를 안고 울었다. 그는 할 수 없이 장사를 지내려고 매장 허가를 내려 면 사무소로 갔다.

『매장 허가를 내려면 5백환이 있어얍니다.』

면 서기는 무슨 회계를 맞추느라고 수판알을 튀기면서 혼자말 하듯이 이렇게 중얼댔다.

『5백환은 무슨 5백환이여? 매장 허가 한장 써 주는데 그렇게 비싸 깐데?』

『그게 허가장 값이 아니라「복권」댐니다』

『「복권」값이라고?』

『「복권」을 사서야 해드리기루 돼 있습니다』

『「복권」은 무데기루 샀당께로』

『그래도 또 사서얍니다.』

『헤헤 오라 작사할것「복권」이 사람 죽였는디 또「복권」이여?』

그게『복권』이 아니라 사람잡는『화'권』이란 말이여!

◇

이렇듯 남조선 인민들을 못살게 구는 리 승만 정부의『복권』강매에 대한 증오의 표현으로써『화'권』이란 말이 돌고있다.

늘은 것과 줄은 것

- 남조선에서 -

가렴 잡세는 늘고
쌀독의 쌀은 줄고

미국 상품은 늘고
국내 상품은 줄고

학비는 늘고
학생은 줄고

무당 판수는 늘고
학자들은 줄고

형무소는 늘고
인민들의 집은 줄고

인민의 원성은 늘어가니
리 승만의 잔명은 줄 수 밖에

원광수 그림

친선의 금자탑

위대한 중국의 벗들은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도 피로써 원조했고 오늘도 계속해서 보내주는 원조의 손'길은 영원한 친선의 탑으로써 기리 빛나리라。

최영근 그림

제2차 작가 대회는 조선 로동당 제3차 대회가 우리 문학 앞에 제기한 력사적 과업을 영예롭게 수행하기 위한 제반 대책을 토의할 것이며 창립 대회 이후 3년 동안의 자기 사업을 총화하게 될것인바, 전체 작가들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왕성한 창조적 열성과 창작적 성과로써 대회를 맞이한다。

인민 문학의 주인공들을 대표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

룡종호 그림

작가 대회 이후에는 없어야 할 일

— 작가 선생! 나를 책상 장식용으로 사 왔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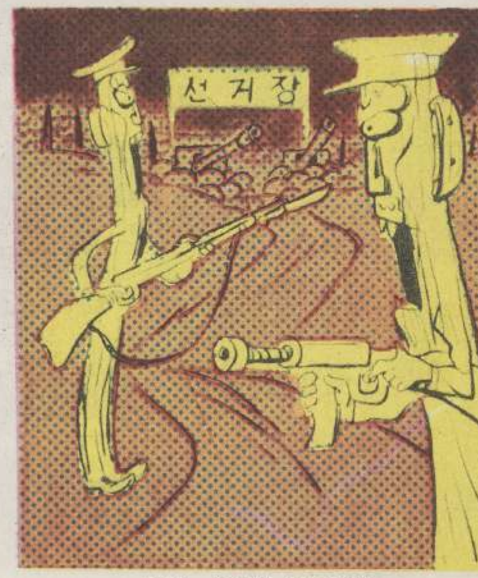
— 이 작가 선생은 내 머리의 먼지를 언제 털어 줄 작정이오?

책 — 여보게 이 평론가 믿구 있다가는 우리 평론을 언제 써 줄지 모르니 딴데로 달아나는게 어떤가?

원광수 그림

박승히 그림

미국식 선거 운동



소위 "자유 분위기"

선거표 수집

테로 방맹이도 한몫

선거표 위조

유령을 동원

국제 유모어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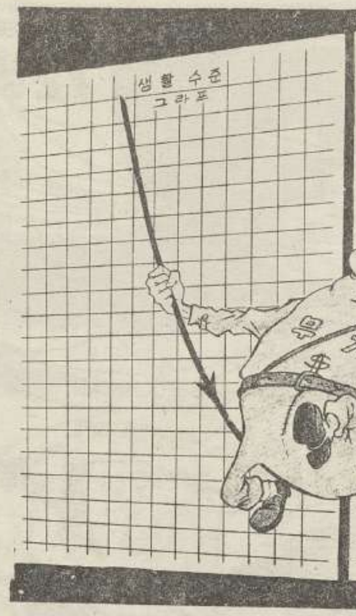
urzica — 루마니아 "우루지까"

루마니아 풍자 만화 잡지 "우루지까"
1956, 158호에서 전재
웰리 피바루우 그림

달레스 미술관을 방문한 만화가들의 사랑하는 손님

유모어:—어른애 용감하시오
나를 몇번이고 자주 초대 하시요

루마니아 풍자 만화 잡지 "우루지까"
1956, 158호에서 전재
마크. 아첵르싸흐 그림



미국의 "융성"

루마니아 풍자 만화 잡지 "우루지까"
1956, 159호에서 전재
웰리. 피바루우 그림

모제—아이쿠! 얼마나 더우냐!

영국 유모어

아버지는 난로 옆에 앉아 있다. 아이들은 자기들이 오늘 한 좋은 일에 대하여 차례차례 그에게 이야기들을 시작했다。

—나는 그릇들을 전부 물에 씻었어요— 맏아이가 이야기했다。

나는 그것들을 마른 행주로 닦았어요— 둘째 아이가 말했다。

—그리고 나는 그것들을 전부 시렁에 얹었어요— 셋째가 말했다。 윈 막내는 말하기를—

—그런데 나는 깨진 사기 조박지만 주어 몽았어요。

× × ×

젊은 처녀가 공상에 잠겨 천정을 바라보고 있었다。그리고 자기의 상대자에게 말했다。

—나와 결혼할 사람은 온갖 소질을 갖추어야 해요。 그는 음악적이여야 하며 새로 새 일화들을 말할 줄 알아야 하며 노래 부르며 춤출 줄 알아야 해요。그리고 술도 마시지 말고 담배도 피우지 말아야 해요。또한 나의 명령에 의하여 당장 수그러져야 해요。

그의 손님은 일어서서 자기의 모자를 찾았다。 그리고 문지방에 서서 말하기를

—당신은 오산을 하고 계십니다。 당신에게는 남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테레비죤이 필요합니다。

× × ×

—나는 코끼리에 대해 그리 대단하게 평가할 수 없어 한 파리가 자기 동무에게 이야기 했다。

—그건 어째서?

—자 그들은 천정을 걸어다닐 수가 없거든。

× × ×

—듣건대 자넨 처에게 까루따 놀이를 가르쳐 주었다두군?—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물었다。

—그러네 자네도 알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멋드러진 장난이네 나는 지난 토요일에 처에게 주었던 월급을 절반이나 봉창해 냈네

아고뇨크 10호에서 (한 동 신 번역)

홍종호 그림

반응없는 고함

—요 놈이로서야 되겠나…련합합시다!

미, 영, 불 제국주의자들이 조작하고 있는 소위 "수에즈 운하 리용자 련합회"에 대하여 서부 렬강들 사이에서도 보조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불안을 일으키고 있다.

인자한 사람

아·말린

나는 나의 일생을
평탄한 길로 가고 싶다
나는 인자한 사람
아무도 건드리지 않으리

라스짜뿌낀은 훼호의 사업을 망쳤고
하뿌낀은 뢰물을 좋아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꼴레찌브가
결함들을 드러 낸다
그렇지만 나는?
아무런 말이든
친절하게 말한다
일기에 대해서나
버섯에 대해서나(유용하게 먹기 위한 것을)
비판을 피하기 위하여
구실이 없으니까……
나는 인자한 사람
아무도 건드리지 않으리

룸낀에게는 고약한 버릇이 있으니
룸낀은 술 주정뱅이
취한 그는 거꾸로 나 자빠지고
좋지 못한 끝장을 초래한다
곤드레 만드레 취한 그는
쌍스러운 개나발을 지껄이며 간다

그러나 나는 그와 투쟁치 않는다
그것에 대해서는 회의가 있는데!
나는 청년들을 엄한 치수로써
영 따지고 싶지 않다
나는 인자한 사람
아무도 건드리지 않으리

뿌로이지스베또브는 나의 이웃 사람
그는 모리 간상배
그가 돈을 번 비결을 나는 알지!
그렇지만 나는 다만 모든 것을
항상 모른척 한다
나는 무슨 일에든
삐치지 않으련다
그것에는 내무원이 있다
사람들은 나에게 말하기를
——그런데 로형은 맹간이구려! 라고
그렇지 않다 나는 많은 사실을 본다
나는 인자한 사람
아무도 건드리지 않으리

어째서 날더러 그냥 나쁘다고 하나?
이상한 현상이다
인민들 한테서는 티끌 만치도
존경을 받지 못하니!

관료주의 춘· 하· 추· 동

상부에는 봄 나비처럼 한들한들

회의에는 오뉴월 태양처럼 열변만 토하는 말공부쟁이

하부에는 추상같은 명령 지시

사업에서는 얼어 붙은 눈사람 모양

백인균 그림

이런 봉변을 당하기 전에

송용남 그림

총화 사업을 제때에 하자

일부 기업소들에서는 분기 총화 사업을 제때에 걷지 않음으로 년말 총화시에 당황해 한다.

말한 보람이 없어서……

장 필순

—자넨 집에가서 아이들을 잘 봐 주는 모양이야。
—갑자기 그건 왜 묻나?
—자네 잔등을 보니 애기 보기에 몹씨 충실한 것 같기에。
—아 이거말인가? 이사람아 어제 밤에 비가 오지 않았나。
—그때 비를 맞으면서까지 아주머니를 도왔단 말이지。
—……
—어쨌든 충실해。
—……
—도와준게 나쁘다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닐세。
—……
—아니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벙어리가 됐나?
—……
—자네 잔등이 얼룩덜룩 하기에 롱담을 한건데
—……
—이 사람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었다면 용서하게 뭘 그렇게까지야。
—자네 말 마따나 집안일을 돕다가 이렇게나 됐으면 제법이게。
—그럼。
—말하자면 방안에서 비를 맞은 셈이지
—방에서?! 오라 천정으로 비가 샜단 말이지。
—……
—그야 뭐 걱정할게 있나。어느 직장에서나 월동 대책에 사택 수리가 포함되여 있는데 자네 같이 그렇게 입을 꾹 다물고 있으니 아마 지도부에서 모르고 있는게지。
—말말게 작년부터 수리해주마 해주마 하고선 겨울을 그냥 보내더니 이번만해도 머리 서둘렀건만"아직 날짜가 있는데 왜 그리 서두려요" 하고는 행정부에선 꿈도 안꾼다네 뭐 집 수리에 대해서 말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암만해도 말한 보람이 없어… 그래서 이제도 집말이 났기에 입을 다문걸세。

지도부의 말

—제법 선선한 날씨군。
—그야 립동이 며칠 남지 않았으니깐。
—착수한 건설 공사들을 빨리 끝내야 하겠는데。
—아니 지도부에선 금년도 동기 공사 준비를 어쩌자고 이렇게 굼뜨게 집행하고 있는가。
—응 동기 공사 준비?
당장 급한게 많은데 겨울 공사 준비야 아직도 여유가 있지 않는가
—작년처럼 발등에 불이 떨어진 다음에야 허둥지둥 서둘을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지
—여보게 동기간 공사야 어쨌던 겨울에 가서 할 일이 아닌가 그리고 준비라는게 뭐 별다른 것이 있다고。
—지금 동기 공사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토공물을 다른 사업에 일부 동원시키고 있지 않는가。
—일이란 차례가 있는거지 아직 대지도 설정 안했는데 그거야。
—그러니 빨리 대지를 설정해서 땅이 얼기전에 땅을 파야한다는건 작년의 경험이 잘 말해 주지 않나。
—땅이 얼면 그만큼 힘이 들것이니 그때 가서는 토공 사업에 다른 부문의 로동자들로부터 방조를 받으면 그게 그거지。
—아니 그래 그게 자네가 할 소린가?
—하하…… 내 말에 자네가 노할줄 알았네 우리 사업소의 동기 공사 준비가 굼뜨게 진행된데 대해서 내가 지도부에 의견을 제기 했더니 이제 내가 말한 것 처럼 대답하질 않겠나。
—말하자면 지도부의 말이란 말이지。

원인은 어데?

장 필순

원 룡필 동무가 지도하는 공장에 들어서면 싯벌겋게 녹쓴 채 버려둔 "고자재"들이 먼저 눈에 띄운다。

한대의 기대도 놀리지 말고 최대한으로 리용해 보겠다는 로동자들의 의견에 "낡은 기계는 생산 능률이 낮기 때문에 새 기계가 제일"이라는 지도 일'군들의 고집으로 인해서 낡은 기계들은 상처를 입은 채 방임되고 있다。

한편 새 기계를 사용하는 제호에서 부속품 부족의 애로를 말하였을 때도 지도 일'군들은

"우선 부속품이 있는 기계부터 돌리시오" 하고는 로동자들이 제기한 의견에 대하여 귀담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되여 소수리만 하면 능히 생산에 도입할 수 있는 기계는 수리되지 않아 방임되여 있고 새 기계인 수동신묵기는 부속품들이 없어 태반이 가동되지 못한 채 방임되고 있다。

형편이 이렇게 되고 보니 이 공장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여보게 저기 저 공장 안에 쌓여 있는 게 뭐인가。
—기계들이지。
—쓸만한건가?
—얼마 전에만 해서도 쓸만한 기계들이 였는데 지금은"고자재"로나 회수하면 될걸세 하고 말을 한다。

그러나 아직도 설비 리용률 제고에 관심이 부족한 지도 일'군들은 결함을 자체에서 찾을 대신

"우리 공장에서 기계 가동률이 낮은 원인은 새 기계가 부족한 데 있다"고 객관적 사정에만 빙자하고 있다。

풍작 할아버지의 주례하에서

풍작—일도 약속대로 잘했으니 백년을 풍파없이 잘살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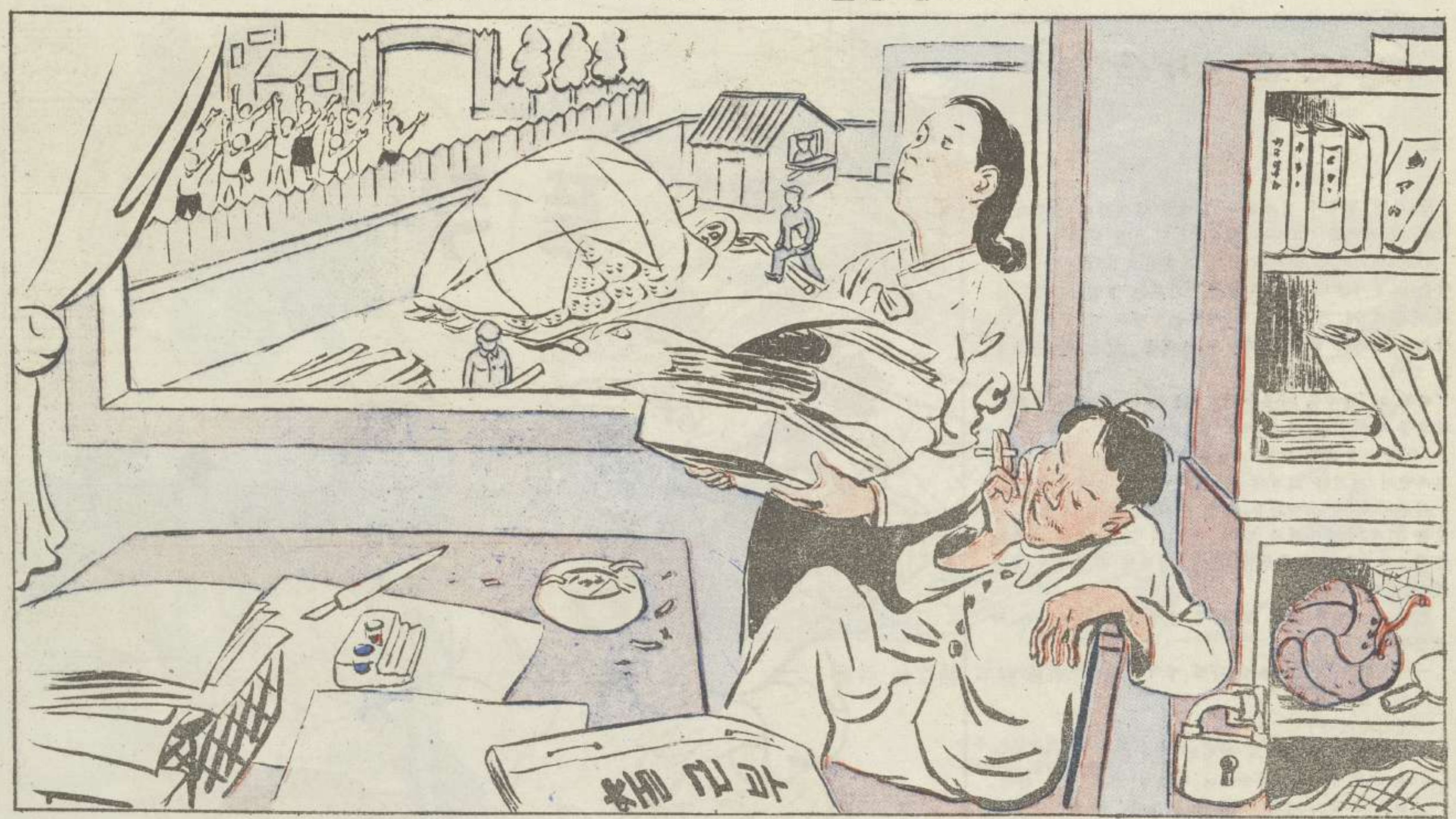
최영근 그림

친절한 관리 위원장

관리 위원장—여보게! 귀중한걸 떨구었네……

송종호 그림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민 보건을 강조한다



송용남 그림

—직맹 위원장동무! 우리는 아침 보건 체조를 안하는 가요?
—병결자들이 나오면 하지!

어떤 기업소의 일부 일'군들은 종업원들의 건강에 무관심하여 인민 보건 사업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

사냥의 명수

—매만이 꿩 잡을가

— ……?!

—흥。꿩 잡는게 매야

리영춘 그림

산 짐승을 잡는 것은 개인의 수익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모피는 외화 획득의 주요한 원천이다。동기간 부업으로 산 짐승 사냥을 계획적으로 진행해야 할것이다。

일부 기업소들에서는 견습공을 기능공으로 양성할 대신 잡다한 보조 작업에 동원 시키는 경향이 있다。

긴급한 과업

—견습공동무 우선 보일라에 불을 좀 때주오

—견습공동무 그 일보다 바쁜 기대 소제를 좀 해주오

……………

—동무 미안하지만 급한 공문서를 부쳐주시오

……………

—긴급한 과업은 나를 기능공으로 양성해 주는 것일텐데…

최영근 그림

록음실

리 운 봉

△ 승객들의 대화

감북동행 뻐스가 종점에 와 닿았다。그런데 그 차에서 승객들이 다 내리자 렬 맨 뒤에 섰던 사람 몇이 뻐스 있는 데로 뛰여갔다。그리고 차장을 부른즉 차장은 선뜩 문을 열어 그들을 태웠다。

촌에서 온 한 승객이 정류소로 나오다가 이것을 보고 아마 저기가 태우는 곳인가부다 하고 헐떡거리며 뛰여갔다。

『여보 문 좀 열어 주』

그러나 어쩐지 이번에는 차장이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돌아선다。

뻐스는 거기에서 벌써 반쯤 차서 사람들을 태우려고 렬로 다가갔다。

타려다 못탄 이 승객은 어리둥절해 있다가 한 아는 친구를 만났다。

『여보게 본평양 역행을 어디서 타는가?』

『저 줄에 서면 되비』

『그럼 여기서 타는 사람은 뭔가?』

『거기서 타는 사람은 따로 있어』

『따로?』

『그렇지 "운전수와 친한 사람은 그런데서도 태워준다네』

△ 조심하지 않다가

황 령감은 벼낟가리에 지대 앉아 조합 벼낟가리를 지키고 있었다。그때 관리 위원장이 순시를 나왔다。

『벼낟가리도 잘 봐야지만 불을 특히 주의하우, 검부레기들이 바싹 말라서……』

『암 이게 불만 붙으면 올 농사는 헛농사가 될 판인데』

그리고는 벼낟가리를 보고 숨박꼭질을 하려 오는 아이들까지도

『불장난질할려 와?! 가라 가라』하여 쫓아버렸다。

관리 위원장이 간 다음 황 령감은 담배불을 껴 주의하노라고 검불들이 없는 곳에 던지고 곤두덕곤두덕 졸기 시작하였다。

헌데 황 령감이 분명이 죽여서 던졌다고 생각한 그 담배꽁초에서 가는 연기가 나기 시작하였다。때마침 불어오는 바람에 그 담배꽁초가 검부레기 있는데로 굴어가 검부레기에 불이 달렸다。그리하여 점점 크게 타들어가더니 거기에서 불'길이 일어나 벼낟가리에 달리였다。

다행히도 불'길이 황 령감 곁에서 불가 시작하여 미[illegible]는 바람에 황 령감은 놀라 깨어났다。그리고는 이리 뒤고 저리 뒤고 하여 겨우 불을 껐다。

『에— 하마트면……』

△ 춘실 령감의 후회

춘실 령감은 일터에서 돌아오다가 아이들이 무엇을 둘러싸고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리로 다가갔다。

『그게 뭐이가?』

『불발탄이예요』

『불발탄?! 에—위험해 위험해!』

춘실 령감은 질겁하여 손을 내저으며 뒷 걸음질쳤다。그러나 아이들은

『일 없어! 이건 이젠 안터지는거야』하며 그 안에 있는 화약을 꺼내려고 도끼로 두드리기 시작하였다。춘실 령감의 아들도 왔다。

그런데 춘실 령감이 방금 방에 들어서는데 요란한 폭발소리가 났다。그때 이웃집 아주머니가 달려들어오며 소리쳤다。

『아저씨! 영식이가 불발탄을 도끼로 두드리다가……』

『뭐 우리 영식이가?!』

춘실 령감은 미친 사람마냥 달려가 보았으나 때는 이미 늦었다。

『아까 내가 기엏구 말릴걸』

△ 대동문 영화관 앞에서

회색 지붕에 전불 더리 우에는 로동자, 농민, 사무원의 군상 조각이 서 있고, 정면에는 하얀 석재로 만든 팔각 기둥들이 나란이 서 있는데 출입구 앞에는 조그만 산데리야들이 마치 손님들을 반겨 맞는듯 구슬 같이 투명한 조각들을 빤짝거리며 드리워 있고 기둥 벽처마 할 것 없이 온통 아름다운 장식 조각으로 수놓은 우아하고 아름다운 대동문 영화관 참으로 영화관은 훌륭하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 앞을 지나가며 이런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야! 저기서 쌈한다 쌈!』

『어디?!』

『아니야 저게 쌈하는 것 갈단 말이야』

『아니 정말 꼭 싸움 하는 것 갈다야』

『꼭 장마당 갈구나』

『아니야 지금 영화판이 너무 길'가에 나와 있어서 좀 들여 놓을려구 그러는 모양이야』

『왜 저렇게 밀구 닥치구 하면서 들어갈가?』

『아마 어른들은 저렇게 들어가야 영화가 재미 있는 모양이야』

『그런게야』

편집 위원 장 진 광(책임 주필) 김 선 낙 박 기 성 송 용 남

발행소 활 살 (시사 만화 잡지)사 인쇄 1956. 10. 10. ㄱ—70754
인쇄소 미 술 인 쇄 공 장 발행 1956. 10. 15. (값 50 원)

미제와 리승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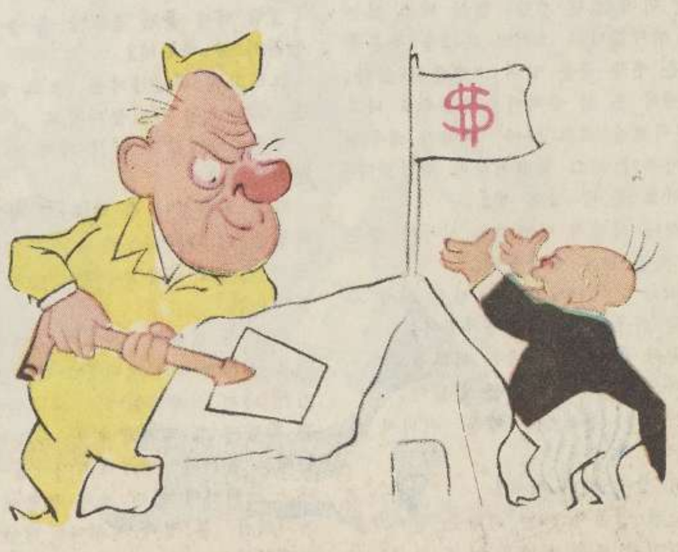
장진광 그림

강력한 평화 력량을 반대하는 미제와 리 승만의
발광은 입김으로 태양의 열을 식혀 보려는 짓

괴뢰군 증강—
리승만에게 편자를 시킨다고 얼마나 달리랴

내부 알력—
체로 걸른다고 흐린물이 맑아지랴

괴뢰 공군 증강—
날고 싶은 생각은 간절하지만 덧붙인 날개가 무슨 힘되랴



괴뢰 집단 보강—
눈집을 단단히 다진들 여름에는 녹지 않으랴